

## □ 질의 응답 □

### 【질문】

국어의 일인칭 및 이인칭의 대명사는 각기 ‘나’와 ‘너’로 “나는 집에 간다,” “너는 집에 간다”와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主格助詞 ‘가’ 뒤에서는 ‘나’와 ‘너’가 쓰이지 못하고 왜 ‘내’와 ‘네’로 쓰이는지 (\*나가, \*너가; 내가, 네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임 승본, 전남 순천시 장천동 1통 3반)

답 1.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國語의 單數一人稱 및 二人稱代名詞의 형태는 ‘나’와 ‘너’로 나타나는데(나는, 나와, 너를; 너는, 너와, 너를……) 主格形의 경우 ‘내가’, ‘네가’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屬格形의 경우 ‘나의’, ‘너의’라는 형태 외에 ‘내’, ‘네’라는 형태가 나타나므로 해서 하나의 대명사가 각각 ‘나:내’, ‘너:네’라는 두 가지 異形態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이인칭대명사가 주격 및 속격에서만 특이한 형태를 갖는 현상은 現代國語의 音韻論이나 文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국어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十五世紀 당시의 대명사의 曲用形態를 살펴 보고 다음에 주격조사 ‘-가’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 15세기 국어에서는 주격조사로 ‘-이’만이 존재했으며, ‘-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앞의 名詞가 子音으로 끝날 때는 독립된 음절로서 ‘-이’가 되며(法이, 사르미), 모음으로 끝날 때는 그 모음과 함께 下向二重母音을 형성하며(孔子], 부테), ‘i’ 모음으로 끝날 때는 零形態가 되어 表記上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비, 불휘). 그러나 마지막 경우에도 聲調形에는 변화가 일어남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일인칭 및 이인칭대명사 ‘나’ 및 ‘너’도 이상과 같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 주격형이 ‘내’ 및 ‘네’로 실현됩니다.

한편 屬格形은 ‘-이/의’와 ‘-사’ 두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前者는 有情物(사람, 동물 등)의 平稱에 쓰이며, 後者는 無情物과 有情物의 尊稱에 쓰이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덕리 喬, 도즈기 畵; 世尊 入 神力, 나랏 小民).

그런데 중세국어 대명사들은 속격형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나’의 속격형은 ‘내’이며 ‘너’의 속격형은 ‘네’이었습니다. 이는 不定代名詞라 불리는 ‘누(속격형 : 누)’와 再歸代名詞인 ‘저(속격형 : 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세국어에서 ‘나’와 ‘너’의 主格形과 屬格形이 같은 형태를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격과 속격형이 완전히 동일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聲調形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基 本 形	主 格 形	屬 格 形
· 나(去聲) 너(平聲)	· 내(去聲) : 네(上聲)	· 내(平聲) · 네(平聲)

따라서 이들 대명사의 주격형과 속격형이 表記上的 모습은 같다고 해도 실제 발음에 있어서는 聲調에 의해 변별되는 서로 다른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던 현재 母音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나타나는 주격조사 ‘-가’는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상 최초의 예는 松江 鄭澈 慈堂 安氏의 書簡(宣祖 5년 : 1572년)에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촌 구드릭 자니 <sup>가</sup>비가 세니러셔 즈로 돈니니

따라서 16세기 후반에는 ‘-가’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7세기 문헌들에는 이러한 예가 여럿 보입니다.

릭가 올 거시니 (捷解新語)

東萊가 요스이 편티 아니 ㅎ시더니 (捷解新語)

그러나 당시에는 ‘y’를 가진 이중모음 뒤에서만 쓰이는 한정된 용법이었습니다(릭, 東萊, 지, 퇴). 그 뒤 ‘-가’의 사용은 점점 확대되어서 현재는 모음으로 끝나는 모든 명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와 ‘네가’는 중세어의 주격형인 ‘내’와 ‘네’가 독립형으로 굳어진 뒤에 다시 주격조사 ‘-가’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近代國語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18세기 말의 『隣語大方』에 그 예가 보입니다.

4. 이상과 같이 국어 대명사들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현대어에서의 특이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주격형에 ‘내’, ‘네’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중세국어에서의 주격형이 曲

用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명사로 인식되면서 後代의 발달형인 주격 조사 ‘-가’와 다시 결합하게 된 결과입니다.

또한 屬格形의 경우는 중세어에서부터 다른 명사와 다른 특이한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나의’, ‘너의’와 같은 일반적인 속격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수식구문에서 意味上的 主語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나의 覺了能知는 다스미 (楞嚴經諺解)

이처럼 현대국어에서도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형으로, 독특한 형태인 ‘내’, ‘네’와 함께 ‘나의’, ‘너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간에는 약간의 意味差가 있으므로 구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金貞娥)

**【문음】** ‘있사오니/있아오니’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호영, 경기 수원시 팔달동)

**【답】** 겸양(겸손)의 뜻을 더하는 선어말 어미(보조 어간)로는, 모음 아래에 {-오-, -읍-}, 자음 아래에 {-으오-, -으읍-; -사오-, -사읍(->삽)-; -자오-, -자읍(->잡)-}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 <sup>ㅅ</sup> 오 <sup>니</sup>	가 <sup>ㅅ</sup> 읍 <sup>고</sup>
읽 <sup>으</sup> 오 <sup>니</sup>	읽 <sup>으</sup> 읍 <sup>고</sup>
민 <sup>사</sup> 오 <sup>며</sup>	민 <sup>사</sup> 읍 <sup>고</sup> (→민 <sup>삽</sup> 고)
듣 <sup>자</sup> 오 <sup>니</sup>	듣 <sup>자</sup> 읍 <sup>고</sup> (→듣 <sup>잡</sup> 고)

그런데, ‘-ㅅ, -ㅆ, -ㅈ’ 등의 받침 아래서는 ‘-ㅅ’이 내리이어져서 {-사-}로 발음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웃아오니, 있<sup>ㅅ</sup>아오니, 없<sup>ㅅ</sup>아오며’로 쓰는 이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먹<sup>ㅅ</sup>아오니(×먹<sup>ㅅ</sup>아오니), 잡<sup>ㅅ</sup>아오니(×잡<sup>ㅅ</sup>아오니), 놓<sup>ㅅ</sup>아오니(×놓<sup>ㅅ</sup>아오니)’처럼 받침 아래에도 {-사오-}형이 붙으므로, {-아오-}형은 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미 {-<sup>(으)</sup>오/<sup>(으)</sup>소}에 대하여 언급해 두겠습니다.

{-<sup>(으)</sup>오}나 {-<sup>(으)</sup>소}는 ‘하계’ 할 자리에서 대접하는 말투로 쓰이는 서술, 의문, 명령형 어미입니다. 이 두 어미의 차이는, {-<sup>(으)</sup>오}는 {-<sup>(으)</sup>소}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정도로 설명될 것입니다.

{-<sup>(으)</sup>오}형은 모음 아래에서는 {-오}로, 자음(받침) 아래에서는 {-으오}로 쓰이고, {-<sup>(으)</sup>소}형은 자음 아래에만 쓰이는 것입니다.

가 <sup>·</sup> 오	보 <sup>·</sup> 오	크 <sup>·</sup> 오
읽 <sup>·</sup> 으 <sup>·</sup> 오	먹 <sup>·</sup> 으 <sup>·</sup> 오	넓 <sup>·</sup> 으 <sup>·</sup> 오
읽 <sup>·</sup> 소	먹 <sup>·</sup> 소	넓 <sup>·</sup> 소

그런데, 이 어미의 사용에 있어서도, ‘-ㅅ, -ㅅ’ 등의 받침 아래서는 ‘-ㅅ’이 내리 이어져서 {-소}로 발음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있오, 없오’로 쓰는 이가 있습니다. {-<sup>·</sup>(으)오}형 어미가 {있-, 없-}에 붙으면 ‘있<sup>·</sup>으오, 없<sup>·</sup>으오’가 되어야 하므로, 두 글자(음절)로 표현하려면 ‘있소, 없소’로 써야 옳은 것입니다. (李殷正)

**[문음]** /ㄴ/의 표준 발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 영만, 서울 은평구 수색동)

**[답]** /ㄴ/의 소리값은 [ɲ] (혹은 [w])로 표시됩니다. 그 조음 양식이, 종설 협모음 ‘-i]’ (혹은 후설 협모음 [w])에서 시작하여 전설 협모음 ‘i]’로 옮겨 가는 2층 모음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ㄴ/가 ‘ㄴ’ (특히 영남 방언에서), ‘l’, ‘k’ 등 몇 가지의 음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과연 표준 발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자 중에는 /ㄴ/를 낱말 첫음절에서는 ‘ㄴ’ (다만 첫소리 ‘ㅎ’에 결합될 땐 ‘l’)로,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는 ‘l’로, 소유격(관형격) 조사의 경우에는 ‘k’로 발음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ㄴ/를 ‘ㄴ, l, k’ 등으로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음운 변화에 있어서 이미 굳어진 사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ㄴ/를 ‘ㄴ’로도 ‘l’로도 발음한다면, 예컨대

- |                   |                                |
|-------------------|--------------------------------|
| 1) 의미 [iimi] (意味) | 2) 표이 [p <sup>h</sup> jo] (表意) |
| 1) 의회 [ihφ] (議會)  | 2) 회이 [hφ] (會議)                |

처럼, 동일 형태소 {의} (意, 議)의 음형이 1)과 2)에서 상이하게 표시(발음)됨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둘째, 예컨대

- |                                |
|--------------------------------|
| 1) 여러 대표들이 상의 [saŋi]하고         |
| 2) 여러 대표들이 상이 [saŋi]하고         |
| 1) 그들은 임의 [imii] 출두한 사람이다.     |
| 2) 그들은 임이 → 이미 [imi] 출두한 사람이다. |

와 같은 경우, 1)에서는 ‘相議’, ‘任意’를 뜻하지만, 2)에서는 ‘相異’나 ‘相議’나, ‘이미(已)’나 ‘任意’나 하는 구별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무이(無二)/무이(無醫), 경이(驚異)/경이(敬意), 각이(各異)/각이(閣議)…’ 같은 동음이의어(음성언어에서의)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세째, 조사 ‘-의’의 발음을 ‘에’로 잡을 때, 예컨대

- 1) 화단—[e](-의) 나무를 옮겨 심는다.
- 2) 화단—[e](-에) 나무를 옮겨 심는다.
- 1) 하루—[e](-의) 일을 끝냈다.
- 2) 하루—[e](-에) 일을 끝냈다.
- 1) 학교 당국—[e](-의) 의사를 전달했다.
- 2) 학교 당국—[e](-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와 같은 형식에서는 관형격과 부사격 표시가 동일한 음형으로 되어, 의미 구조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ㄴ/의 소리값 내지 발음 문제는 간단히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소멸 과정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2중 모음 /ㄴ/를 그대로 유지하고,

- 1. /ㄴ/가 둘째 이하 음절에서 ‘ㄹ’로도 발음되는 현상은 비표준 발음으로 다루며,
- 2.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으로써 ‘-에’와의 변별적(시차적) 기능을 지니도록 하고,
- 3. 다만, ‘의의(意義)[iiii]→으이[ii]처럼, 한 낱말 안에서 /ㄴ/가 직접 거듭될 때 일종의 동음 생략 현상으로 그 중 하나가 줄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으이’로 발음됨을 인정하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설명에 따라 발음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의미	의사→의사	의롭다→의롭다
성의→성의	도의적→도의적	피어쓰기→피어쓰기
우리의 맹세→우리의 맹세	대한 민국의 국기→대한 민국의 국기	
민주주의의 의의→민주주의의 으이		(李殷正)